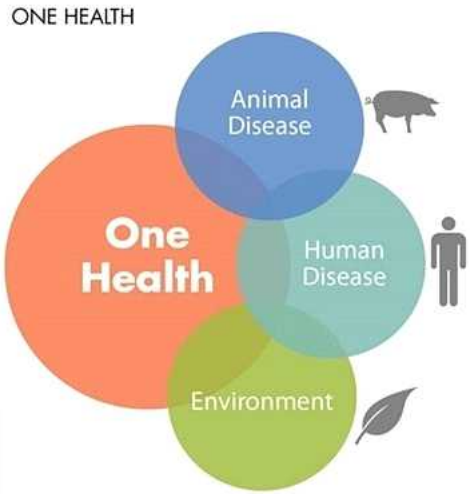
원헬스(One Health)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 사람과 동물, 생태계 건강은 하나 -



류 재 근 박사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한국에코과학클럽 회장
한국환경한림원 원로회원
대한위생사협회 자문위원장
전 한국자연환경보존협회 회장 (23~24대)
전 대한위생학회 회장
전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전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 (6~7대)

신형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에 의해, 인류는 역사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들어, COVID-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 중 약 70%가 인수 공통 감염병(Zoonosis,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의 배경에는 인류가 자연환경에 미쳐온 악영향, 즉 지구 규모 이상의 기후변화, 대규모 삼림의 파괴, 토지 이용의 전환이나 농업·축산업의 공장화 확대, 한층 더 나아가 야생동물의 상거래·소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최대 82만 7천 종류가 있다고 추측되는 가운데 예방대책에 드는 비용은 팬데믹에 의해서 입는 피해액의 100분의 1로 추계되고 있어, 이제부터는 예방적 접근을 통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의 의료나 공중 위생, 환경보전에 종사하는 기관·단체는 한국, 그리고 세계에서의 신흥·재흥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팬데믹 방지를 위해서 「사람」「동물」「생태계」의 건강을 하나로 생각하는 원헬스(One Health)의 이념 아래, 각각의 힘을 집결 및 제휴하여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활동에 임해 갈 것을 선언합니다.

- 생태계의 건강을 지킵니다.

● 전 지구적 규모의 인간 활동 확대가 삼림 벌채, 산불 등의 자연 파괴를 야기하고 신흥 감염병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여 환경 문제의 위기를 호소해 가겠습니다.
● 신흥 감염병의 발생이나 새로운 유행을 막기 위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건전한 생물의 연결을 배려해, 지금까지의 과도한 자연 환경에의 출입이나 과잉한 이용을 포함한 야생동물과의 관계 방법을 재검토해 갑니다.
● 지구상의 생태계가,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보전과 회복에 임하고, 그것을 위한 행동을 사회에 호소합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을 되도록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행동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지침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 동물(Animal)의 건강을 지킵니다.

● 우리가 접촉하는 동물에는, 반려동물(伴侶動物)이나 가축 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종류의 야생 동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 사람과 동물 사이에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인식해, 동물들과의 거리감을 재검토해, 적절한 관계를 생각해야합니다. 또, 감염병 리스크가 높은 야생동물의 식용 등 이용이나 거래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 그것을 위해서, 병원체를의 보유할 가능성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생태에 대한 이해 향상이나,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건전성의 모니터링,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가축의 감염병 대책, 가축의 복지 향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람(Human)의 건강(Health)을 지킵니다.

● 건전한 생태계의 확보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과 풍요로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호소해야합니다. 공중 위생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기후변화, 삼림 파괴, 수질 오염, 폐기물 오염, 토양 오염, 해양 오염이라고 하는 환경 문제를, 국제적, 지역적 등 다양한 범위의 협력·제휴 아래 해결해, 심신 양면의 건강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생태계(Eco-system)의 보전,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의 확보, 가축과의 적절한 관계의 구축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인수 공통 감염병), 약제 내성균의 만연, 식품 오염 등에 의한 건강 피해를 방지해, 공중 위생의 향상에 공헌합니다.

● 원 헬스(One Health)의 생각이나 여러 활동에 대해서, 폭넓은 세대의 시민에게 교육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생태계(Eco-system)의 건강(Health), 그리고 동물(Animal)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람(Human)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3개의 건강을 하나의 건강이라고 생각해 지켜나갑시다.

<참고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을 소개드린다>
공익 재단법인 일본 자연 보호 협회에 대해 자연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1951년에 창립된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자연 보호 단체의 하나.회원 2만 4천 명과 팀 계획이 추진되었던 어제의 자연보호를 시작으로 야쿠시마(屋久島)나 오가사와라(小賀原), 시라카미산지(白神山地)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초석을 다지고, 지금도 일본 전국에서 파괴될 것 같은 자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여 「자연의 힘으로, 내일을 연다」라고 하는 활동 메세지를 내걸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아기부터 요람(揺籃)까지가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여 웃는 얼굴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해 활동하고 있는 NGO입니다.
산에서 바다까지, 일본 전국에서 자연을 조사해, 지키고, 살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ttp://www.nacsj.or.jp/

우리나라 한국의 자연보존협회는 1968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일본의 자연보존협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연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입니다. 2007년, 한국 조선일보와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환경상을 자연보존협회가 일본 동경에서 류재근 회장이 회장 재직시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파괴될 수 있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자연의 힘으로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